

충장로 1가 일대 흙탕물 대소동

상수도 파열... 교통혼잡·상인들 큰 피해

늑장 대응 '분통'

광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하수관 매설 작업 중 상수도가 파열되는 바람에 1시간 이상 수돗물이 치솟아 주변 교통혼잡은 물론, 인근 상인들에게 적잖은 영업 손실을 입혔다.

특히 관리 주체인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흐른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는 등 늑장대응과 미숙한 처리로 상인들과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사고 발생=28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에서 하수관 매설 작업 중 상수도가 파열돼 지하 1.5m 지점에 매설된 상수도관(지름 300mm)에서 1시간 동안 650t(상수도사업본부 추산)의 물이 흘러 넘쳤다.

누출된 물은 충장로 1가 입구부터 광주우체국까지 50m에 이르는 도로에 유입돼 일대 도로와 상가 입구 등이 온통 흙탕물을 투성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2시간 이상 보행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고, 주변의 일부 상가는 침수 피해까지 입었다. 또 상수도관 파열로 1시간 동안 충장로 일대 1천 개소에 이르는 상가에 수돗물 공급까지 끊겨 상인들이 밭을 굽렀다.

A씨(전문점 직원) 천주현씨는 “2시쯤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오더니 결국 단수가 되는 바람에 커피를 한 잔도 팔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모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남현철씨는 “빗자루로 칠새 없이 매장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밀어냈지만 여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사고가 난 충장로 1가 입구 도로에서는 지난 1일부터 (주)대림산업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의 하나로 ‘광산길 배수관과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중이었다. 시 공사측은 문화전당의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해 이날 오전 지하 5m 깊이에 굴착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상수도관을 견드려 관이 파열됐다.

또 사고가 난 상수도관 부분은 강도나 연성이 주철보다 약한 회주철 재질로 돋 쉽게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내 상수도 관은 대부분 강도가 강한 주철로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하수관 매설을 위해 땅을 파던 굴삭기가 상수도관을 파열시켜 수돗물이 치솟는 바람에 1시간 이상 이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다.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교환했으나, 사고 지점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교체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김명호 관리차장은 “공사에 만전을 기했으나 우리 측 공사 과정에서의 실수로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늑장 대응’ 원인=이날 사고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수도본부 측은 사고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2시40분께 도착하고도 현장 정리나 지휘 차량 등도 없이 산만하게 사고를 수습해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로부터 비죽을 샀다.

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현장 도착까지 30~40분이 소요된다”며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이 상수도 방향을 바꾸고 현장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안 증도 ‘한반도 해송 숲’

전국 ‘아름다운 숲’ 우수상



산림청, 장흥 가지산 비자림 등 전남 4곳 장려상

신안 증도 ‘한반도 해송 숲’ 등 전남 지역 5개 숲이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돼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과 유한킴벌리, 산림청 주최로 올해 10회째를 맞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부문에서 신안 증도 한반도 해송 숲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장흥 가지산 비자림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강진 다산초당~백련사 간 숲길이 ‘숲길’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화순 남면 평촌마을 숲이 ‘마을 숲’ 부문 장려상을, 광양 옥곡초등학교가 ‘학교숲’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90 개소를 응모해 5개 부문에 16곳이 최종 선정됐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 증도에 자리한 해송 숲은 1950~1960년대에 우전해수육장 백사장의 모래남립 피해를 막기 위해 조립한 곳으로, 공중에서 보면 한반도 형상을 닮았다. 90㏊에 40~50년생 소나무 10만 그루가 자라고 있다.

장흥 가지산은 보림사 주변에 150~300년생의 비자나무와 물푸레, 노각나무가 상층림을 형성하고, 하층식생으로는 장흥 전통 ‘청태전’ 원료인 녹차가 비자와 함께 숲을 형성하고 있다.

강진 천년고찰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잇는 800여m의 숲길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조의선사, 혜강법사가 오가며 교류하던 곳으로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동백림이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뽐낸다.

화순군 남면 내리 평촌마을 숲은 하천을 따라 1km에 걸쳐 느티나무, 팜나무, 미루나무, 상수리나무 등 거목들이 줄지어 서있다.

학교 숲 부문 장려상을 받은 광양 옥곡초등학교는 지난 2006~2008년 학교숲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의 자연학습장과 지역민의 휴식장소로 조성했다.

신안군 환경공원과 이세관 담당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송 숲이 생태경관과 치유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sinan=조완남기자 wncho@



장흥 가지산 비자림



강진 다산초당~백련사 숲길



화순 남면 평촌마을 숲



광양 옥곡초등학교 숲

오늘 날씨

해롭 07시 25분 해진 18시 20분

달롭 15시 37분 달진 01시 24분

“한낮엔 더워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늦게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광주	흐립	20/26°C
목포	흐립	19/24°C
여수	흐립	20/24°C
완도	흐립	19/25°C
구례	흐립	18/27°C
해남	흐립	18/26°C
장흥	흐립	18/26°C
고흥	흐립	19/26°C
순천	흐립	19/26°C
영광	흐립	18/26°C
진도	흐립	19/25°C
전주	흐립	17/27°C
전남 원	흐립	16/27°C
흑산도	흐립	19/23°C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보통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일비단	북~북동	0.5~1.0m
만비단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일비단	북동~동	1.0~2.0m
만비단	북동~동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만비단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일비단	북동~동	1.0~2.0m
만비단	북동~동	1.5~2.5m
보통	경고	보통
밀물	썰물	
목포	23:28	04:31
여수	05:59	16:28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수)	10(목)	2(금)	3(토)	4(일)	5(월)
날씨						
최저/최고	19/25	19/25	18/26	15/23	14/25	15/24

지리산 노고단도 ‘탐방예약제’

가을 성수기 10월 12일~11월 16일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부사무소 (061)783-9106,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독감 무료 예방접종

광주시, 내달 12일부터

광주시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50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 및 장애인(1~3급) 집단시설생활자 등 모두 8만4천여 명이다.

사무소 관계자는 “노고단 정상의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성수기에 해제한 독감 예방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탐방예약제에 대한 문의는 지리산국립공원남

자에게 실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